5 BREADS 2 FISH

예수께서 내시는 식사

# 오병이어

2015 5월

WWW.5BREADSand2FISH.ORG Father's Warehouse: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 주께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 막막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오병이어 페이스북,이메일 facebook.com/fivebreads.twofish 5Breadsand2Fish@gmail.com 323.400.7830

#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시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더 이상 같이 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지난 주 괴물 불도져를 가지고 왔던 B라는 멕시코 형제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를 연발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처음의 말을 바꾸어, 불도져 사용료로 우리로써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말 내내 B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비싸면 안쓰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려는 것 같아. B에 대해 기도해봤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어. 그리고 원하는대로 다 해주려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B 형제.

처음에, '아니, B가 턱도 없는 금액을 부르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불도져로 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B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B에게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한 상황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깊게 고민하고 애쓰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주말 내내 틈마다 기도를 하시고, 마침내 B를 만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보면, 당신이 주안에서 나의 형제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B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하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있어서, 설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던 B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이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해 아직 순종하지 않으신게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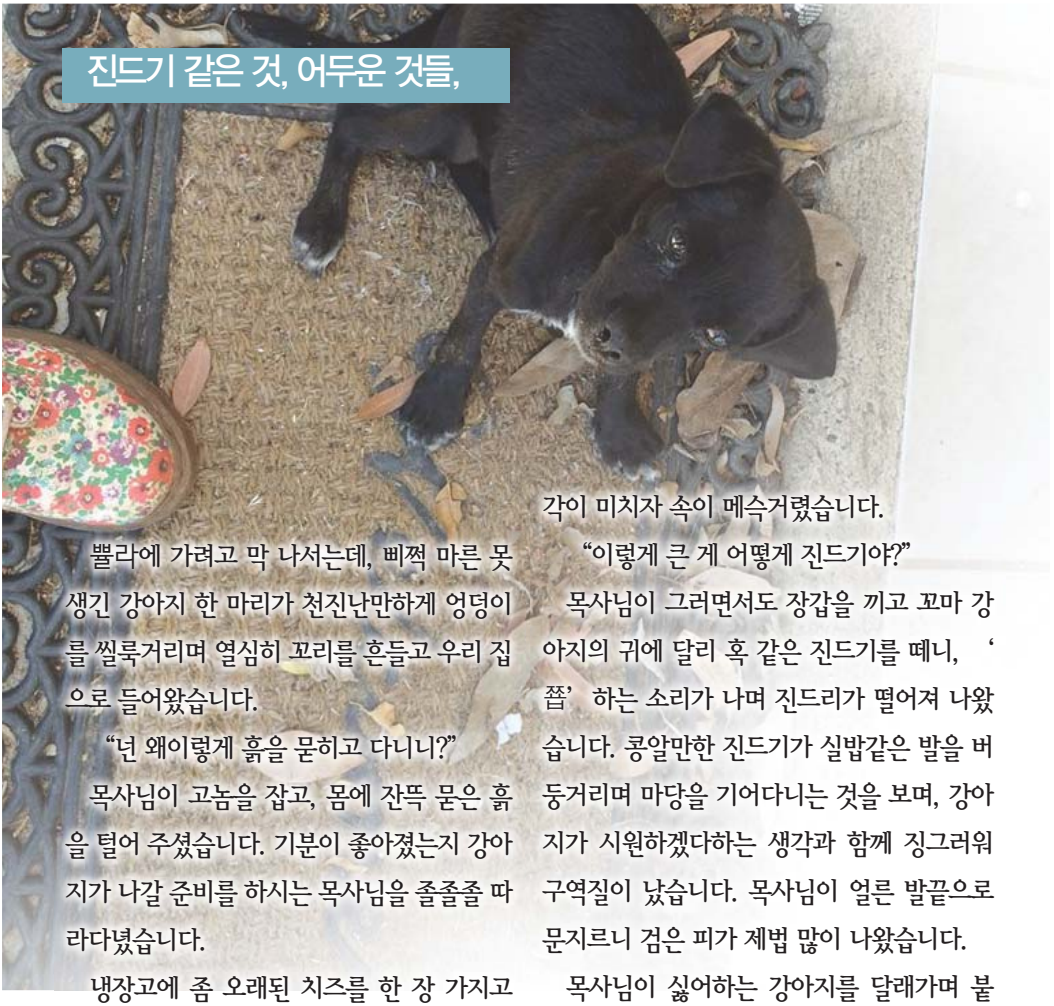
B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B가 자기는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가 원하는대로 기도를 시작하자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들끓었었노라고 B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 B. 어두운 무언가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뽑아달라고 오신 목사님이 따갑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가 오늘 일한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깍지 않고 다 주려고.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는 없어."



# 진드기 같은 것, 어두운 것들,

뿔라에 가려고 막 나서는데, 삐쩍 마른 못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천진난만하게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열심히 꼬리를 흔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왜이렇게 흙을 묻히고 다니니?"

목사님이 고놈을 잡고, 몸에 잔뜩 묻은 흙을 털어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는지 강아지가 나갈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냉장고에 좀 오래된 치즈를 한 장 가지고 나와 꼬마 강아지에게 주면서 보니, 천방지축 펄럭거리는 귀 아랫쪽에 작은 혹 같은 것 두 개가 보였습니다.

"야, 너 귀여운데 너무 더럽다. 그리고 너 발가락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애. 어떡하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발을 보니 정말로 발가락 사이에 귀에 있는 혹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봤지만 이게 바로 그 유기견들에게서 발견되는 진드기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속이 메슥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게 어떻게 진드기야?"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장갑을 끼고 꼬마 강아지의 귀에 달리 혹 같은 진드기를 떼니, '쯥' 하는 소리가 나며 진드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콩알만한 진드기가 실밥같은 발을 버둥거리며 마당을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강아지가 시원하겠다하는 생각과 함께 징그러워 구역질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얼른 발끝으로 문지르니 검은 피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싫어하는 강아지를 달래가며 붙잡고, 왼쪽 귀에서 두 개, 오른쪽 귀에서 무지 큰 놈 하나, 발가락 사이에서 하나를 떼어내셨습니다. 큰 놈들은 다 떼어내었지만 오른쪽 귀 속에 아직 작은 놈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집앞에 있는 동물 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차마 꼬마 강아지를 안지도 못하고, 조금 앞서가며 따라오라고 하니, 꼬마가 종종거리는 발걸음으로 졸졸졸 잘도 따라왔습니다.

"내 강아지로 뭐하는 거예요?"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영어를 쓰는 몸집이 큰 아주머니가 한 분 나타나셨습니다.

"얘가 아주머니 강아지예요?"

"내 건데요."

"몸에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 데려가려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원래 그렇다면서 괜찮다던 아주머니는 목사님이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시니 못이기는 척 따라왔습니다. 마침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 있었지만, 목사님은 나중에라도 강아지에게 약을 주고, 치료비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도 우리와 친한 아가씨입니다.

2주간 브라질에 다녀오니, 집안에 개미들이 수만마리가 줄줄이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밖이 더우니 안으로 이동 경로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먼 여정에 마디마디 관절까지 피곤한 와중에 개미들을 다 잡고, 수 많은 점과 같은 시체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런 진드기들보다, 개미들보다 더 징그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치워주고, 닦아주고, 회개하고, 몰아내고, 말씀 안에서 씻기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아무 것도 아닌 '속이는 것들' 에게 빼앗기면서도 모르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내 신발 어디있지요?"

오늘은 너무 서두르다가 뿔라에서 신는 나의 꽃가죽 신발을 모르고 집에 놓고 온 것은 한참이나 차를 타고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다시 차를 모셨습니다. 바쁜데 돌아가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슬슬 마당에 신발을 두고 왔나 하는 생각에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맘을 잘 아시는 목사님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이야기 하시다가, '신발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요?' 묻는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신발 없어졌어도 속상해 하지마. 없어졌으면 두 개 사주께."

애한테 하듯한 유치한 맨트. 게다가 맨날 기름값도 없으시면서..... 그러나 그의 진심임을 알기 때문에 피식 웃음이 나왔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신발은 없어지지 않았고, 좀 돌아갔지만 해는 아직도 길게 남아있어서 해야할 일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진드기 같은 것, 개미들의 공격같은 것, 어두운 것들, 사람을 누르는 것들, 역겨운 것들은 하루를 살면서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약간의 온기와 기쁨으로 행하는 따뜻한 수고로 모든 어둠과 역겨운 것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4: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부**를 거는 것

어른 키보다 훌쩍 큰 바나나 나무는 잎이 다 헤어져서 낡고 피곤한 깃발같습니다. 못생겼다고 웃었더니, 호세랑 목사님도 흙을 펄펄 날리며 일하시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내년쯤 새 잎들이 온전히 나오면 폼이 더 날걸로 기대해 봅니다.

낙원의 새, birds of paradise 두 개도 커다란 잎사귀를 펄럭이며 잘 심겼습니다.

가차없이 뜨거운 멕시코의 햇살. 그러나 그늘만 있으면 어느 휴양지 못지않은 쾌적한 날씨와 그림같은 하늘에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 뿔라는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문도 달린 땅이 되었습니다.

옮겨심긴지 아직 일년도 안된 잎사귀들이 좀 후져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고가 달렸습니다. 어떤 것은 어른 엄지만합니다.

다 때가 있어서, 햇살이 따갑다 싶다가도 구름 언저리가 장밋빛으로 변하면 곧 아늑한

밤이 옵니다.

100년쯤 지나, 우리가 다 잠이 든 뒤에도 이 땅에 살며 거대한 망고 나무를 타기도하고, 열매를 먹기도할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한없이 행복합니다.

뿔라의 입구에서 들어오자 마자 바로 보이는 평평하게 밀린 맞은편 땅이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3층 짜리 건물은 오른쪽으로 돌아올라가는 램프가 있고, 거기에 다시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목사님은 지금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 집에서 5월까지만 있겠다고 집주인 미구엘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5월말에는 뿔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돼요?"

목사님이 물으실 때 나에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해를 가릴 지붕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자하시면서, 걱정이 안되기를 바라실 수는 없는건데....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살 궁리 먼저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못나보이는지 잘 보고 들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살 건물 먼저 짓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맞게 보이는지 충분히 보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런 흉한 마음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아이들 데려다가 살게할 건물 먼저 지을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게 옳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 곳이 조금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여러 건물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정화조를 파는 일과, 산 위에 땅을 파서 방수처리를 하고 커다란 물통을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부를 거는 것이다."

목사님은 거침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 다들 여기저기 조금씩 다치고, 아프고...

'아침 어떤 사람이 커피를 나단전도사 얼굴에 뿌리고 도망갔어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어서 애니 사모님이 알로에로 응급처치 했습니다. 안정되고 있지만 기도해 주세요.'

오병이어 아버지 창고에서 매일아침 빵과 커피를 나눠드리는 홈카페에 이상한 사람이 왔었나봅니다. 김종목 목사님의 메세지를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엘에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 할 수 없이 조급한 맘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나단 전도사님은 추미례 집사님의 남편 장로님의 병원에 다녀와서 주사맞고 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서 안쓰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조용주 사모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나단이 화상을 입자마자 마켓으로 달려가서 알로에를 사다가 환부에 바르고 바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참 잘했다고 하며 써주신 처방전을 받고 약을 사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몇 군데 살갗이 까지고, 빨갛기는 한데,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브라질에 있는 우리가 걱정할까봐 마음을 쓰시는 사모님께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가드를 보던 T가 커피를 뿌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갔지만, 그 사람이 너무 빨라서 결국 놓쳤다면서 매우 미안해했다고 했습니다. 은근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부지런한 T에게 고마웠습니다.

"이왕 병원에 간 길에, 캐니 약도 처방 받아서 지어왔어요. 쉬지를 않으니 잘 낫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스테프들은 어때요?" "다들 여기저기 조금씩 다치고 아프고 그래요."

항상 밝기만한 조용주 사모님의 음성에 깊은 애정과 배려가 느껴져서 굉장히 고맙고, 스테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플 때, 기꺼이 상처를 봐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나단 전도사님의 얼굴과 목에 데인 상처가 흔적도 없이 속히 아물고, 그 마음에도 아무 상처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고싶고, 사랑하는 엘에이의 아버지 창고의 모든 스테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요새 커피 맛이 어때요?"

오전 7시, 오병이어 아버지 창고 홈카페에서 서빙이 시작되기도 전에 줄을 서있던 분께 목사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진하고 맛이 좋아요."

"잘 됐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움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적이 어디냐구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그전에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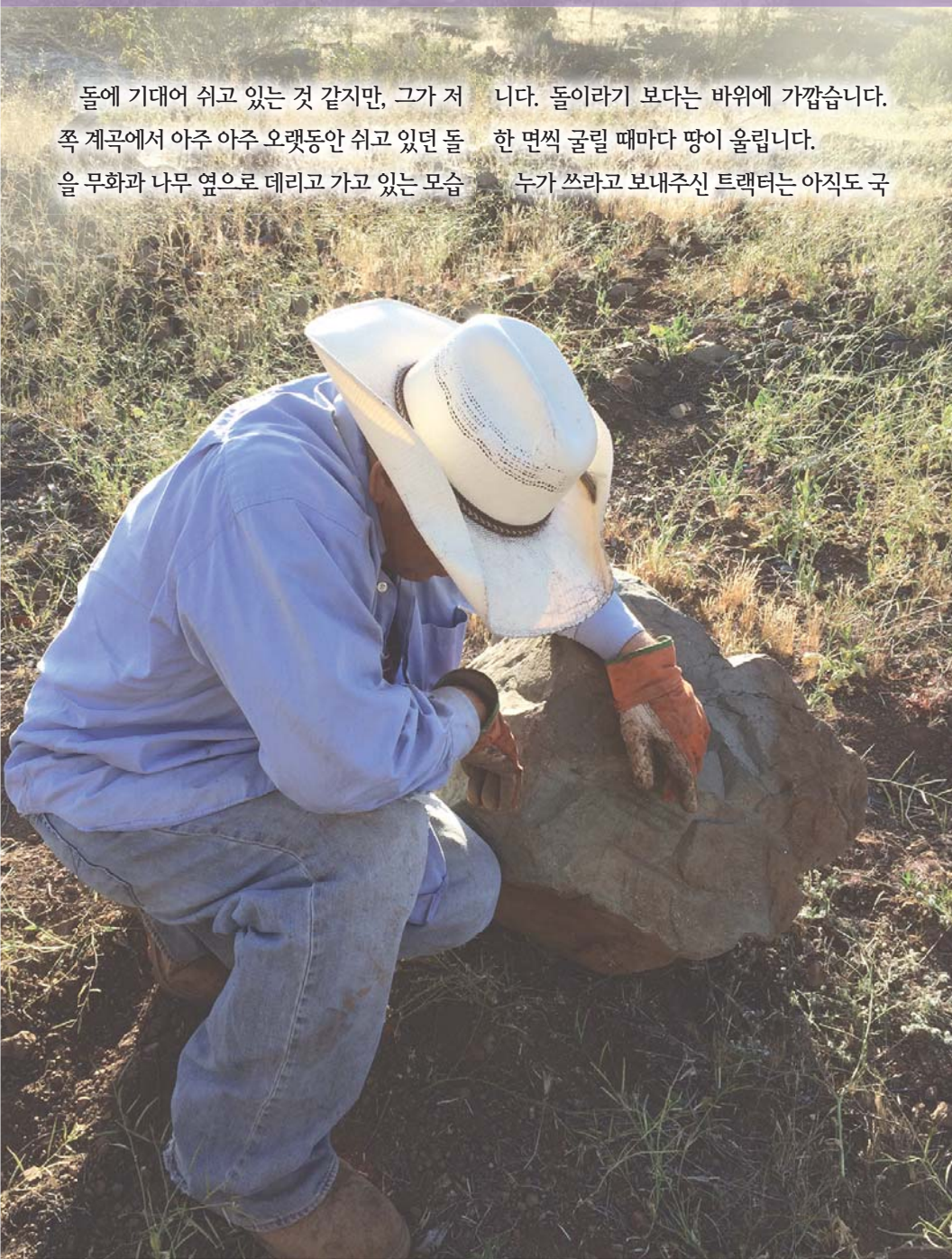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입니다. 때때로, 아프도록 분명하게 기억되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되십니다.

망가진 영혼들을 보며, 울어도 울어도 시원치않은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새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 라벤더야, 괜찮니?

돌에 기대어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저쪽 계곡에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쉬고 있던 돌을 무화과 나무 옆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니다. 돌이라기 보다는 바위에 가깝습니다. 한 면씩 굴릴 때마다 땅이 울립니다.

누가 쓰라고 보내주신 트랙터는 아직도 국



경에 있고, 목사님은 장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한참을 온 힘을 다해 돌을 굴려놓고, 그위에 앉아 따가운 볕에 눈을 찡그리며 물을 한병 쉬지도 않고 단숨에 마시며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여기 누가 앉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나도 아이들이 웃으며 안전하게 뛰노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지만,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 쏟아내야 하는 끓는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문에 달 출입문과 담벼락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땅은 붉고, 노랗고, 보라색의 꽃들을 넉넉하게 쏟아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 웅큼의 라벤더를 수확했습니다. 브라질에 다녀올 2주 동안 잘 말려두었다가 올게닉 라벤더 오일을 만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라벤더가 자라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라벤더 농장이 매우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첫 라벤더 오일은 요즘 피부가 건조하다는 뿔라의 첫 주민인 멀린에게 주려고 합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일테지만 왠지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항상 집에 가자고 조르는 사람은 나였는데, 오늘은 내가 라벤더를 따고 있는 동안 아직 반도 못했는데, 차에 시동까지 걸고 기다리시는 목사님 덕분에 대충 하고 집으로 왔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라벤더를 따고 있는 동안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며 몇번이나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아니라 라벤더에게 괜찮냐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 '아니야, 오해야.' 라고 하십니다.

## 고맙다는 것은 말이 안통해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YWAM 강사로 초청받은 이준 목사님을 따라 갔습니다. 멕시코를 출발해, 마약을 파는 도매상들도 다 문을 닫고, 슬픈 사람들도 다 잠들어 있는 엘에이의 거리를 지나,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주님의 식사를 나누고, 또 다른 전장으로 갔습니다.

몇개의 화장실과 샤워실, 이층발코니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는 아버지 창고의 엘에이의 수고하는 스테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장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불안함과 걱정보다는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YWAM 300sp DTS 강의 3일째 오전 강의를 끝내고, 점심을 먹은 후, 지운이가 써 준 버스와 전철노선에 적힌대로 길을 찾아나섰습니다.

물어물어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찍는 단말기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버스 직원아저씨가 20레아 지폐를 내밀며 해맑게 웃는 목사님에게 무엇을 막 설명하시다가, 그냥 앞에 앉아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3.5레아씩 하는 버스비에 20레아를 거슬러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야할 역이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더니, 내릴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시고는 그 역에서 버스가 서자, 버스비도 안 받고 잘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운전기사와 돈받는 아저씨에게 오래 오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의사표현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한인 타운인 봉헤찌로 (BOM RETIRO)에 도착해서 만남 노래방을 지나, 푸른샘 유치원을 지나, 뉴욕제과, 오뚜기 식품, 두리서당과 새로남선교회를 지나 브라질 중앙문화원에서 전시된 예술품들을 감상하고,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설렁탕집에서 파를 많이 넣고, 맛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 마치 동네 아저씨들 만나듯이 가볍게 인사하며, 둘째가 유치원에 가는 걸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용욱 형제님과는 작년 EDS 이후로 1년만입니다.

YWAM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마침 퇴근시간이라 어디를 가나 만원이었습니다. 버스안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 꽉 껴서 숙소 앞에 내리기는 했는데, 비가 하늘에서 퍼붓듯이 내려서 900미터 앞에 있는 숙소까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리듯 얼굴을 치는 빗줄기를 피해 정류장 앞에 있는 작은 선술집, 바에 앉아서 GUARANA라는 브라질 탄산음료와 각각 닭고기와 소고기에 밀가루를 입힌 튀김을 하나씩 먹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브라질은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저수지 물이 1%밖에 차지 않아 제한 급수까지도 했었다고 하니, 오늘 비가 얼마나 반가운 비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쏟아붓는 비는 저로써도 너무나 오랜만이라, 김덕연 간사님이 차로 올때까지 한 시간 정도 바에 앉아서 비구경을 실컷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와중에 우산을 하나 사주겠다고 길건너까지 장대비를 맞고 다녀오셔서 아주 홀딱 젖으셨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길건너 슈퍼에서는 우산을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버스타고 출발해서, 동네 바에서 튀김과 GUARANA를 먹으며 끝이 난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안에 보대끼며 왔다갔다하는게 행복했습니다. 브라질이 너무 좋고, 친절하고 정이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 어느 영혼이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몇 년전, 상파울루에서 가장 추웠던 어느 겨울날. 루시아나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수프를 먹이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무도 함께해주는 이가 없어도, 무섭다고 다들 피하는 밤거리에 혼자 커다란 수프가 든 냄비를 들고 나갔던 여린 여자의 순종이 지금의 수파오 사역입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브라질, 한국, 인도, 일본, 중국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커다른 솥에 뜨거운 수프를 끓여 마약과 술에, 악에 짓눌린 도시의 어둠을 부수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 나갑니다.

회개함과 성령 세례, 그리고 바로 방언이 터지는 일은 물론이고, 새로 직장을 잡고 새 생활을 시작한 홈리스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모든 수고에 주께 돌아온 한 영혼이 있다면 값진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랑 잠깐 들러서 홍당무랑 감자깍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방문온 친구들이 함께 해주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루시아나와 브라질 사역자들, 함께한 모든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도시를 세워가는 주의 용사들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박수를 보냅니다.

매주 목요일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에서 있는 홈리스분들을 위한 예배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영혼이나 천하보다 귀한 무게는 같다." 는 이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엘에이 스키드로에서 만나는 홈리스 식구들과 같은 빛을 담은 눌려있는 눈빛과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코에 맡아지는 그들의 몸과 영혼에서 나는 진한 절망의 냄새때문에 기도드리는 내내 막막함으로 주 앞에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브라질 목사님과 음식을 나누는 형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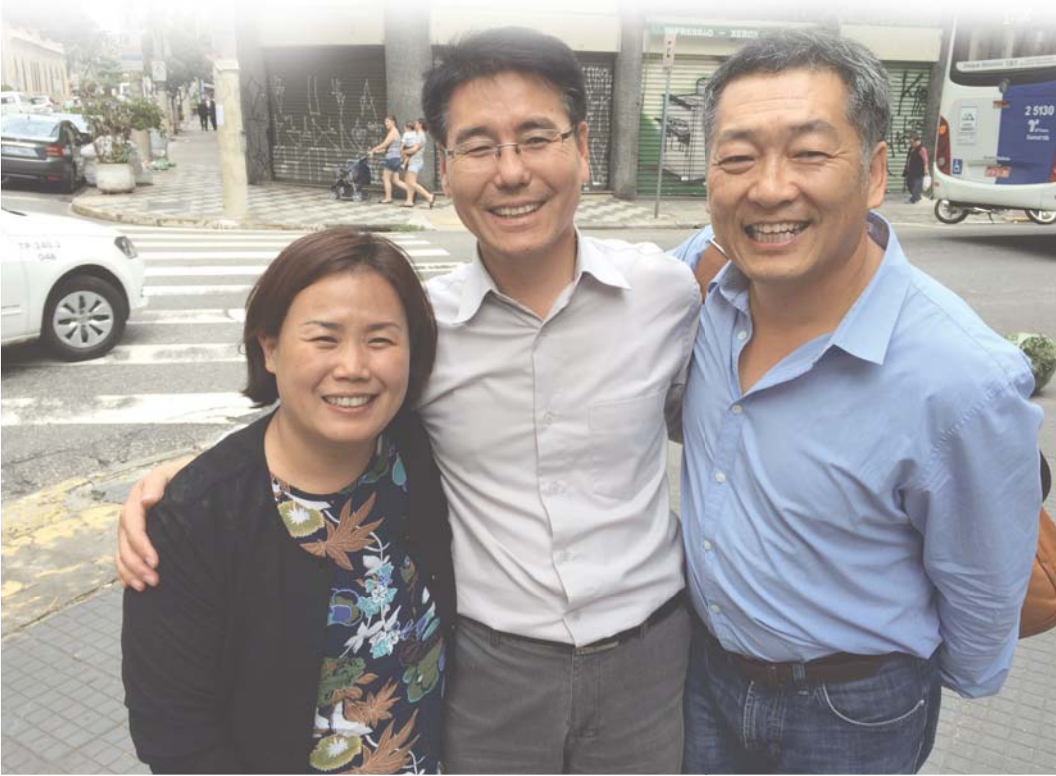
# 주께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막막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브라질에 도착하니, 광활한 곳에 날리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같이 느껴져 너무 막막해서 염치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 최소한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버려진듯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에 동양선교교회의 김병관 장로님과 파벨라 사역을 하고 계신 이갑성집사님, 임은수 집사님, 오철환 선교사님과 몇몇 반가운 분들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사역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전도지를 나누며 길거리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저는 언어도 안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무릎 꿇고 때를 좀 썼지요."

오늘 처음 만나뵈는 이진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막막함이 저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래도 다른 분의 전도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셔서 거리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하



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 인대가 끊어졌어요. 가방을 끌고 하도 다녀서요.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지요."

선교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등을 안으시며 '괜찮다' 하시는 것 같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몸도 다 치유되시고, 벌써 수년째 해오고 계신 길거리 전도를 통해 신학생도 나오고,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도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진남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사모님께서 그 세월, 참고 참은 눈물을 조용히 흘리셨습니다.

이번엔 오철환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삶에 나타나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불구자야. 순종하는 것도 없이 맨날 기도만 구걸하러 다니니, 몸이 멀쩡하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불구가 아니고 뭐냐말이야. 홈리스 센터에 가서 얼마간 있다가 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는데, 왜 나를 거지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야?' 하고 오철환 선교사님은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씩씩거리며 자려고 누웠는데, '영적 불구', '영적 불구' 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식구들에게는 한 2주 정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브라질에 있는 어떤 홈리스 쉘터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이 쩍쩍 열리면서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말씀보면서, 홈리스 사람들하고 성경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금방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로써 새 삶이 시작된 계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어떻게든 잘 표현하려고 애쓰시는 오철환 선교사님의 이야기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먼 곳, 브라질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좋은 이야기를 또 듣고, 그의 사람들을 만남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막함으로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준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곳 브라질 땅에서 하실 일을 믿고,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대화를 보고 들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림에 감사합니다.

#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브라질에서도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인 기 목사님이 18살 때, 위험하다고 말리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랑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 음식을 산 다음, 동네에 있던 빈민촌인 파벨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어떤 집 앞에 발길이 닿았을 때,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면서 안에 대고 소리를 쳤답니다.

“음식이요. 음식이요.”

그러자 안에서 연세드신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조금 후에 작은 봉지에 채 반도 차지 않는 쌀을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자 받아요. 내가 가진 것의 반이예요.”

가여운 젊은이 둘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달라는 줄로 착각하신 할머니가 반 봉지 쌀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의 반을 덜어 나누려 하며,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아마도 그의 아들을 생각했던 것이거나, 친척 중 누구이거나, 누구든 그녀가 사랑하는 어떤 이를 위함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먹을 것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리려고 왔

어요.”

할머니가 내미시던 반 봉지의 쌀보다 비교도 안되게 많은 음식을 드리면서, 18살의 기 목사님도 울고, 친구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기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면서, 버려진 것 같은 빈민촌 파벨라에 들어가 사역을 하신지 5년이 되시는 31세의 젊은 목사님 기. 지금은 100여명의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5년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가 웃었지만, 깊은 마음의 주름이 충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등에 총을 맞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도 척추에서 1센티 빗나가는 바람에 반신불구를 면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곳곳에서 인내와 성실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함께하시며 나타나신 주님의 발자국과 눈물자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뿔라의 둘 다 학교 선생님으로 가진 것 없는 젊은 부부는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역하기 좋은 넓직한 마당이 있는 집의 렌트비는 3,000해알(1,000달러)입니다. 렌트비의 반은 학교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반은 어찌해야할까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렌트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마자 걱정 말라며, 본인이 내주겠다고 해서 오갈데도 없고, 대책도 없었던 기 목사님 가정에도 스위트 홈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가 직접 하신 일에 대해 티를 팍팍 내십니다.

지붕이 높고 깨끗한 집은 빈민촌 파벨라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넓은 마당이 있

고, 집 앞 공원 너머 보이는 반짝이는 인공호수는 백만불짜리 대저택 못지 않은 운치가 있었습니다.

기목사님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고, 이제 7월이면 또 예쁜 공주가 태어날 것입니다. '둘 이상(Two or more)' 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를 드리신지는 이제 8개월째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생겼다고 자랑하시는 목사님. 겉모습만 이쁘장한 버스는 운전석도 조수석도 가죽이 다 찢어져 너덜너덜한 고물버스입니다.

그들이 17살만 넘으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끼는 파벨라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함께 놀고, 축구도 하고 가족같이 지낸 것이 벌써 5년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다른 기 목사님의 따뜻한 가정을 보고, 그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파벨라의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해주세요?"

어느날 아이들이 기목사님께 묻더랍니다.

"뭐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을 보여주고, 마음대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할지 몰라서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 도시빈민과 거주빈민

목사님은 도시빈민과 거주빈민은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심을 배회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둑질, 거짓말, 각종 오물을 투기하고, 아무데서나 자리를 펴고 시도때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도시빈민으로 분류하고, 이와 달리 가족 단위로 슬럼에 살며, 그곳에서 태어나 가난과 절망과 무지로 범벅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주빈민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도시빈민으로 유리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눈을 하고 오늘 하루를 연명할 한 방의 기회를 노리던지, 일생일대의 기회를 기다리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거나,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오래된 죄의 종이 되어 죄악된 습관이 시키는대로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주빈민은 도시의 가난과 죄악으로 절망의 담이 높이 쌓인 슬럼에 거주하며, 주로 홀로 도심을 유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가족단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찌든 가난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같은 절망은 아직 어린 아이들의 눈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하는 두려운 상황을 낳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자아이들은 가정부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아이들은 여섯명 정도 부하를 거느린 깡패 두목이

되고 싶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당연한듯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지난 2주간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주님께 받은 가장 큰 특명은 브라질 슬럼가인 파벨라의 가장 자리에 '겸손의 땅(Humble Zone)'을 만들고,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로 오병이어 사역의 흐름이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브라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브라질에서의 전쟁의 전략은 도시빈민과 거주빈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되, 특별히 거주빈민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상파울루에만 300개의 슬럼가인 파벨라가 있고, 각각의 파벨라의 경계지역에 '겸손의 땅'을 선포하고 예수의 깃발을 꽂아, 각 파벨라 마다 아이들의 실정에 맞는 사역의 형태로 그곳의 아이들에게 아무도 버려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섬김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목사님은 파벨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벗어버리고, 습관적 죄악을 회개하며,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회개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파벨라 밖의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의 영과 싸워야하며, 빈민들을 천대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며, 가난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 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파벨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

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도시의 죄와 부모의 죄로부터 보호하고 주 안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용사들로 양육할 것입니다.

파벨라의 안과 밖에서 겸손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는 화해의 장이 펼쳐지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소망의 외침이 울려퍼지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브라질 오병이어 비영리법인은 상파울루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몇몇 헌신된 분들과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파울루 도시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도시교회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주께서 원하시면 불꽃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강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붙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든 마음대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닛시! 오직 우리의 구원자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실 때는

T, 칠수(미국이름 쎄븐), 캐니, 데니, 네 명의 스테프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척척척 함께 일하니, 큰 팔렛에 엄청난 양의 폐지가 금새 정리가 되었습니다.

"얘가 여기에 파리를 먹어요. 다 먹는데 열흘 정도 걸린데요."

작은 화분에 담긴 가여운 '파리 지옥'에 실험적으로 억지로 파리 두 마리를 먹였던 이야기를 하는 캐니와 아버지 창고 공사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란을 정리하는 애니 사모님. 까만 고양이 새라는 쥐를 물고 다니다가 스테프 하우스 안에서 놓쳐서 된통 혼

이 났습니다.

25 파운드 원두커피는 생각보다 꽤 덩치가 있었습니다. 이번부터 매달 LA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전문점 중 하나에서 도네이션 받기로한 25파운드 세 백, 75파운드 커피는 34킬로가 조금 넘는 무게이고, 아버지 창고 홈 카페에서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브라질에서 도착하자 마자, 아버지 창고에 들러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멕시코 사역지에 나눠드릴 식료품을 가지고 멕시코로 출발할 때에, 우리 스테프들은 푸드 드라이브를 막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애니 사모님은 아직도 다리가 불편한 캐니에게 좀 쉬라고 말하고, 캐니는 들은듯 만듯 웃기만 하고 부지런한 손과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드 드라이브 같이 가고 싶은데....."

캐니가 션에게 이야기해서 사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로 내려가는 길에 션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compton이라는 흑인 동네로 가는 날입니다. 오병이어 자원봉사 목걸이를 하나씩 걸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맘이 들뜨고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전에는 몇 안되는 사람들이라 서로 안과 밖을 훤하게 알던 사역터가 이제 점점 넓어지면서, 낯선 얼굴들이 훨씬 많아졌지만,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데 동의를 한 사람들이라 서로 말을 많이 안해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실 때는 바다같이 넓고, 밝아서 따뜻한 빛안에 있는 것 같이 포근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프들, 푸드 드라이브 가족들, 홈카페 식구들, 가족 우체국 식구들, 그리고 같이 기쁨으로 기도해주시는 주님 안의 동역자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꿀밤 두 대 맞고, 해피 앤딩

목사님이 팔을 만졌을 때, 헥터 아저씨가 몸을 뒤로 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난 괜찮다니까요.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잖아요."

헥터 아저씨는 어깨부터 등, 팔에 딱딱한 멍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아이처럼 겁을 냈었습니다.

LA에서 선애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보라 목사님이 헥터 아저씨의 멍울을 보시고, 어혈같은 거라면서 약을 지어주셨었습니다. 약값이 싸지가 않아서 데보라 목사님이 몇 주간 돈을 조금씩 모으셔서 약을 지으셔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양쪽 팔이 찌릿찌릿하던 것도 없어졌어요."

헥터 아저씨가 나아져서 다행이고, 정성스레 약을 지어주신 데보라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쥐 때문에 무서워서 몇 번이나 울면서도, 매일 성실하게 창고에 나오시는 조용주 사모님이 아버지 창고에서 쥐를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막대기로 두드려서 사냥감을 한 쪽으로 몰아갔고, 헥터 아저씨가 각목을 들고 공격했는데, 결국 사냥감은 캐니 형제의 발길을 맞고 휙 날아가서 어디로 숨었다는 이야기.

캐니 형제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을 다쳐서 다리를 절고, 조용주 사모님도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발을 다쳐서 절고 있었기 때문에 데보라 목사님께서 오늘 침을 놓아주러 가셨는데, 사모님은 침맞는 것이 겁나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다가 결국 꿀밤을 두 대 맞고 강제로 침을 맞으셨다는 이야기. 그래도 침 맞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해피 앤딩.

# LA 푸드 드라이브 스케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일주일에 8만명분의 식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곳에서 푸드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각 지역으로 30분전에 가시면 됩니다.

5 BREADS 2 FISH Meals on Jesus!

**Monday:** 4:30 PM (delivery onl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Tyler Avenue
El Monte, CA 91732

**Monday:** 2:00 PM
E.Rancho Dominguez Service Center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uesday:** 2:00–3:30 PM
Ramona Gardens Recreation Center
2830 Lancaster Ave.
Los Angeles, CA 90033

**Tuesday:** 2:30–4:00 PM
Victory Outreach Rehab, Compton
613 N.Crane Ave. Compton, CA 90221

**Wednesday:** 3:40–5:00 PM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hursday:** 2:00–3:30 PM
(1) Boys and Girls Club East LA
324 N. McDonnell Ave.
Los Angeles, CA
(2) Watts Senior Center
1657 E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02

**Friday:** 2:00–3:00 PM
Carecen Day Labor Center
16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Saturday:** 3:00–4:00 PM
MacArthur Park
2230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

문의: 5breadsand2fish@gmail.com

# 성막이 돌을 입기 전에

오병이어 이준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에 말씀의 끝은 이해함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그러나 세상 이야기의 끝은 이야기 일뿐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머리로 이해함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동행함이 없는 순종' 을 말로만 살다보면, 항상 '무임승차' 를 원하게 됩니다. 보인은 피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은혜' 를 외쳐대나, 사실은 거저 먹으려는 것입니다. 한 손엔 말씀이란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 의 멱살을 잡고서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라 외치며, 다시한번 주님을 찌르는 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칼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약속을 지키라고 악을 써대는 그 비열한 비릿함 을 들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는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어 허락된 존귀함이십니다. 공짜취급 받는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바꾸어도, 그 어떤 값어치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은혜로 다듬어진 삶 속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맛이 있으십니다.

성막이 돌을 입기 전에..

깊이 패인 기초가 심기워지고...

한삽, 한삽 하나님의 심호흡으로 채워져 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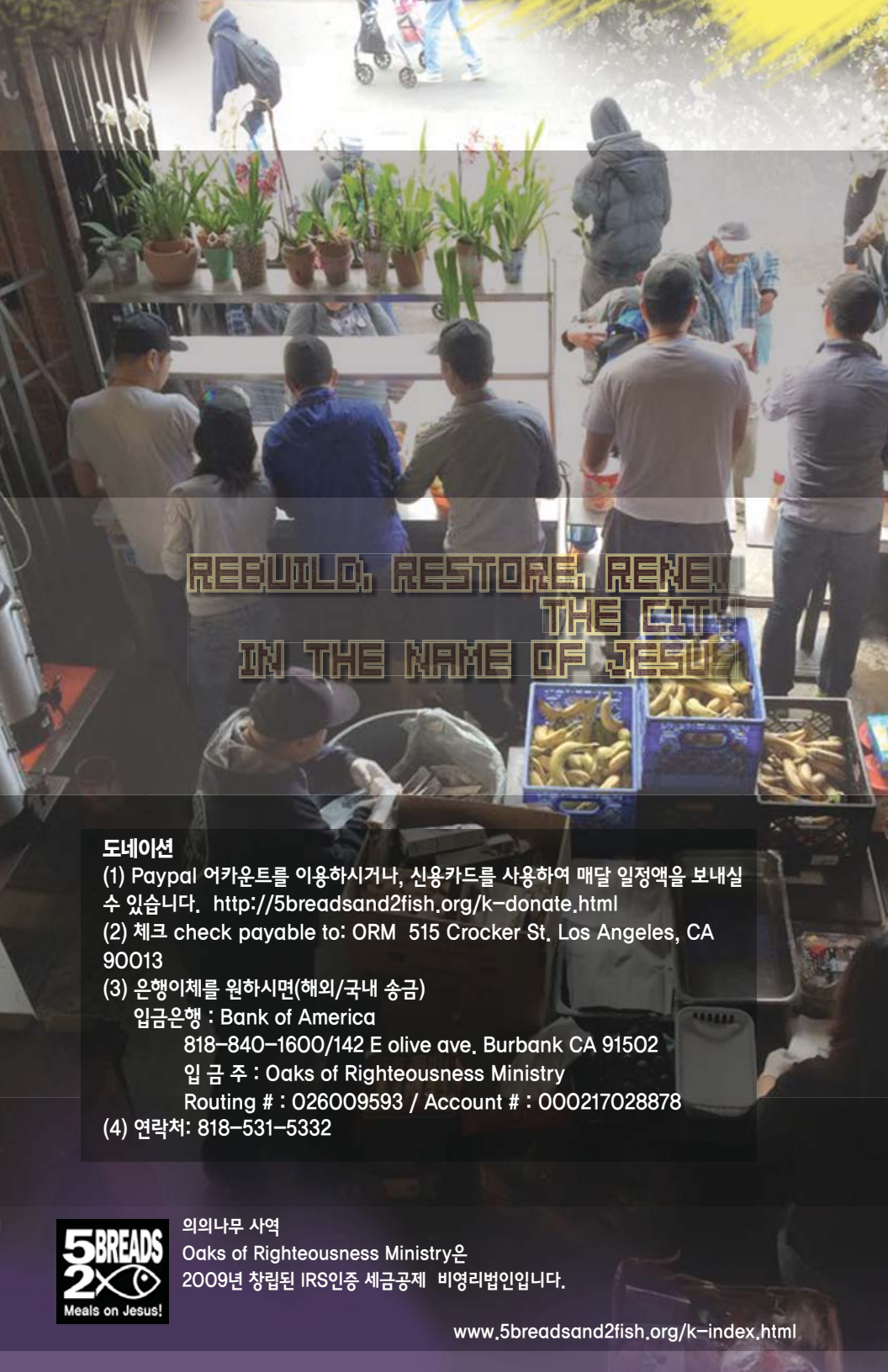
그냥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핏 값으로 치루워진 고결한 영혼의 위대함.

지금..

이 영원한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당신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 나가시는 '새 예루살렘' 이신, 새성전인 당신을 믿음으로 그려 봅니다. 그렇게 뿔라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쉴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음이요.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믿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신묘막측 하시며
아름답고도 위대하기에 함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울리는 생명의 떨림은
모든 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자녀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니
살아있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바라봄은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요..
이 동행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니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게됨이라...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되는 날마다의 순간 속에
미리 영원을 살게하시니

할렐루야..




**도네이션**

(1) Paypal 어카운트를 이용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5breadsand2fish.org/k-donate.html

(2) 체크 check payable to: ORM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3) 은행이체를 원하시면(해외/국내 송금)

입금은행 : Bank of America

818-840-1600/142 E olive ave. Burbank CA 91502

입 금 주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Routing # : 026009593 / Account # : 000217028878

(4) 연락처: 818-531-5332

5 BREADS 2 FISH Meals on Jesus!

의의나무 사역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은

2009년 창립된 IRS인증 세금공제 비영리법인입니다.

www.5breadsand2fish.org/k-index.html